

기름값 내릴 땐 ‘느긋’ 올릴 땐 ‘총알’

정유사 공급가 20~40원 올리자

광주·전남 주유소들 앞다퉈 인상

정유사들의 기름값 ℓ 당 100원 할인 조치가 끝난 지 1주일 만에 기름값 상승세가 현실로 다가왔다.

주유소의 여유 재고분이 소진되면서 시작한데다 지난 12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주간 주유소 휘발유 공급가격을 20~40원 올리면서 재고가 없는 주유소별로 눈에 띠는 가격 인상이 시작됐다.

13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할인 조치가 종료된 6일 밤 이후 7일 광주·전남 지역 보통휘발유 ℓ 당 평균가격은

은 각각 1897.27원, 1900.12원으로 전날의 1901.26원, 1902.34원보다 하락했지만 다음날부터 소폭 인상이 시작됐다.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ℓ 당 평균가격은 지난 12일 전날보다 1.66원 오른 1903.31원을 기록했으며 13일에는 1.64원 오른 1904.95원으로 연일 상승세다. 전남도 지난 11일 1903.66원에서 12일 1906.29원, 13일 1907.61원으로 올랐다.

아직은 재고 여유가 있는 주유소들이 있어 평균 가격은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지만 지난 12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가 주간 공급가격을 올린 데다 나머지 정유사들도 14일 공급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인상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13일 광주 서구 농성동 인근에 몰려있는 주유소들은 재고 여부에 따라 업소마다 보통휘발유 ℓ 당 1859 원에서 1899원까지 적게는 20원, 많게는 40원까지 기름값이 차이가 났다. 일부 주유소들이 빨 빠르게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추세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공급가 단계적 환원 방침을 밝힌 GS칼텍스가 주간마다 ℓ 당 20~30원씩 공급가격을 올려 결국 할인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 수준에 도달하는 ℓ 당 100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정유사들도 단계적 환원 방침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GS칼텍스의 동향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인상 폭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GS칼텍스가 단계적 인상 방침을 먼저 밝혔지만 어차피 공급가가 ℓ 당 100원씩 한 번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기름값은 정유사들이 결정하는 문제라 주유소업계에서 가격을 말할 수는 있지만 공급가가 인상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대학생·기업 희망을 이어요”

광주테크노파크, 16개 기업 선정 취업기회 제공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풍국)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밟았고 나섰다.

광주테크노파크는 13일 광주지역 기업 중 ‘일하기 좋은 기업’ 16곳을 선정해 지역 대학생들이 탐방하는 ‘대학생-지역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대학 취업센터가 공동으로 지역 대학생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직접 탐방해 중소기업



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지경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안정성 및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종사자의 근무만족도 등 기업의 근로조건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주)광주은행을 비롯해 (주)오픈테크놀러지, (주)이노센코리아 반도체사업부, (주)한빛옵토리안, 광주인탑스(주), 글로벌광통신(주), 뉴모텍, 동아병원, 에프엔엔(주), 앰코테크놀러지코

리아(주) 광주공장, (주)코셋, (주)에이지광학, (주)은하, 하남전기, (주)옵토론, (주)포스포 등 총 16개 기업이 뽑혔다.

또 참여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조선이공대학, 동강대학, 송원대학 등 광주지역 총 7개 대학 682명이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이 프로젝트는 지역에도 일하기 좋은 우량기업이 있음을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연 확장을 밝히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지역 기업과 대학생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6월 취업자 68만7000명

지난해보다 1.6% 증가

광주·전남 지역의 지난 6월 고용동향이 약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보면 광주의 6월 취업자는 6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1만1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농림어업(5000명)

등이 증가했고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4000명), 건설업(-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제조업(-1000명) 등은 감소했다.

고용률은 58.1%로 지난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과는 같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3.3%로 0.6%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지역 6월 취업자는 9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2만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4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2000명) 등은 증가했다. 건설업(-1000명), 농림어업(-3000명), 제조업(-3000명) 부문 등은 감소했다.

전남의 6월 고용률은 6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129.64 (+19.91)
코스닥지수	494.97 (+4.34)
금리 (국고채 3년)	3.71% (0.00)
원·달러 환율	1060.60원 (-5.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